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 2026/06/01 ~ 2026/06/07]

2026.06.08

[로봇] 유니트리가 온다

-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원익시아 증설, HD현대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신제품 출시
- 유니트리, 거래소 상장 심사 통과. BYD도 휴머노이드 참전
- 일본 산업용 로봇 연간 수요 전망 전년비 +17%로 상향 조정

[방산] 방산 업종, 반등하려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로 생산 중단. 수출 물량 차질은 없을 전망
-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란 전쟁. 미국-이란 협의 중단. 이란은 쿠웨이트에 미사일 발사
- 7월 초, 나토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 참석 예정. 동맹국 무장 축소

[조선] 이번엔 FLNG

- 델핀 FLNG 수주 완료. 캐나다 시더 FLNG는 진수. Eni 모잠비크 세번째 FLNG 입찰 추진
- 캐나다 잠수함을 향한 한국의 막판 공세. 정치 로비와 원유 구매, 수소 인프라까지
- 미 해군 연구개발 자금 18.5억 달러 투입해 한국과 일본에서 선체 건조 가능성 대두

[항공] 한중 운수권 확대

- 대한항공 사반도체 업고 日 물류 영토 확장, 아시아나 통합 시너지 본격화
- 7년만에 한중 하늘길 넓어진다, 상하이-광저우 항공편 확대
- 이란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 항공편 우회운항 차질

[해운] 호르무즈 개방 이후

- HMM 컨테이너 넘어 에너지 물류 확장, VLCC 20척 규모 선대 만든다
- KSS해운 장기대선계약 334억원 증액, 총 1,754억원으로 확대
- 부산궤 컨테이너 운임 상승 지속, 미주-유럽 항로가 끌어올렸다



Weekly Keyword

유니트리가 온다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상장 신청 73일만에 상하이 거래소에서 승인. 3Q 내로 상장 전망. 상장 후 AI 투자 등 신국면 맞이 전망.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국 로봇 대비 단기 우위 점할 전망.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9)

[유니트리가 온다]

- 지난 1일,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상하이 거래소 상장 심사에서 승인을 획득. IPO 신청 이후 73일만에 승인되며 역대 최단 기록을 달성. A주 최초의 상장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올해 3분기 내 상장이 예상됨.
- 유니트리는 중국에서 갖는 상징성도 크고, 지난 해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량에서 1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체력도 확보.
- 물론 아직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비중은 10% 이하이고, 중국 내 애지봇 등 타 업체/유사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 AI 기술 부족 등 리스크도 다수 존재. 이번 공모 자금 1조원 확보 후 AI에 투자할 계획. IPO 이후 유니트리의 Phase 2 진입 주목.
- 한국의 입장에서 유니트리 상장 후 피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부담 존재하나, 유니트리의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 가능성 주목.

Key Chart: 엔비디아 레퍼런스 플랫폼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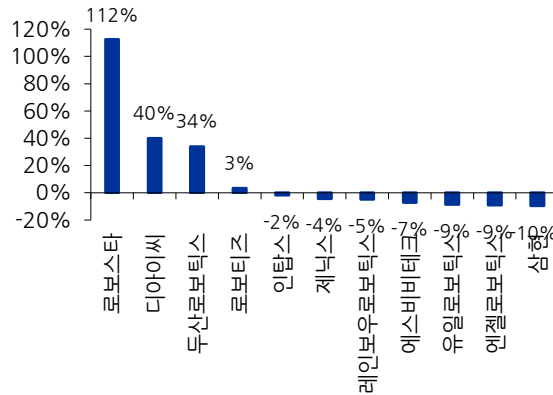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6/01~06/07)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두산로보틱스 美 거점 9월 증설. "생산능력 2배"
- HD현대로보틱스, 6년만에 협동로봇 신제품 출시
- 티로보틱스, 150억 규모 美 ESS 공장 AGV 수주

[휴머노이드]

-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하반기 미국 세일즈 로드쇼
- 디든로보틱스 "175cm 휴머노이드 11월 공개"

[부품/SW/기타]

- 젠슨황 "韓 로봇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투자 검토"
- 로보티즈 대표, 젠슨 황 AI 스타트업 간담회 참석
- 삼성·현대차·LG·두산, 美 최대 로봇 전시회 총출동
- 1분기 국내 로봇 기업 전년비 매출 제자리걸음

[글로벌]

- 엔비디아, 유니트리와 휴머노이드 연구 플랫폼 공개
- Generalist AI, 4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 유치
- UCLA 로봇연구소, 오픈소스 '마이더스 핸드' 공개
- 아마존, 유럽에 로봇 등 100억 달러 물류 투자
- 유니트리,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심의회위원회 통과
- 中 애지봇, 첫 오프라인 매장 문연다
- BYD도 휴머노이드 개발에 참전
- 中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1.1만대 생산 기록
- 소프트뱅크, 獨 '에자일 로봇'에 4,000억 이상 베풀
- 일본 시로봇협회 "8만 시간 로봇 데이터 수집 중"
- 日 산업용 로봇 수주 전망 전년비 +17%로 상향
- 베트남 빈로보틱스, 휴머노이드 플랫폼 'VR-H3' 공개



Weekly Keyword

방산 업종, 반등하려면

방산 업종 올해 고점 대비 27% 하락하며 부진. 반등의 요건으로 중동 사태 안정화, 그리고 7월 나토 정상회담에 주목. 최근 환율 상승 및 금리 상승 우려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수 있는 점도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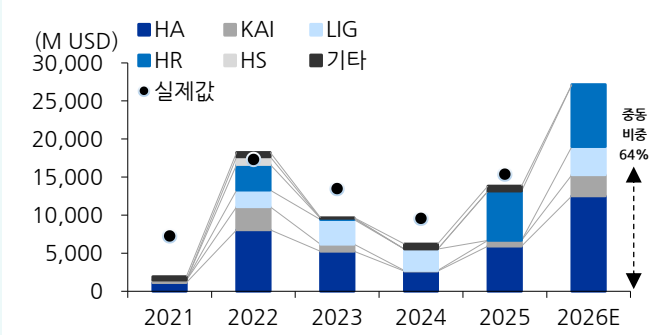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77)

[방산 업종, 반등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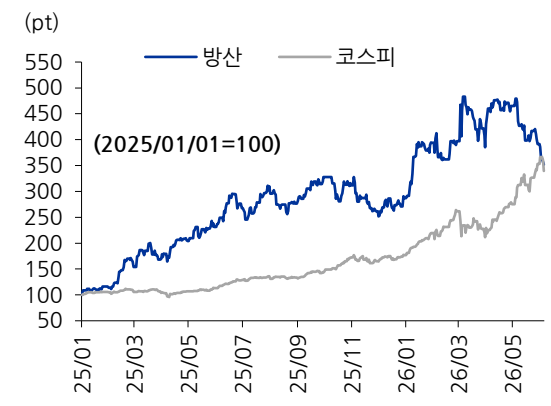
- 국내 방산 업종, 올해 고점 대비 -27% 하락 중. 이란 사태 발발로 인한 기대감 소멸과 신규 수주 딜레이, 입찰 경쟁 심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등 영향. 방산 업종의 반등 요건으로 (1) 이란 사태 종식 (2) 7월 NATO 정상회담에 주목할 필요.
- 올해 한국의 해외 방산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약 250억달러를 예상하는데, 이 중 60% 이상 중동향. 중동의 불안정한 지정학 여건으로 계약 체결 지연 되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다르게 오히려 전쟁이 끝나야 수주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 NATO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NATO 탈퇴 혹은 유럽 내 군사력 축소 언급 가능성 높다는 점 주목. 그리고, 최근 달러 강세는 수출이 많은 방산 업종에 오히려 긍정적. 미국 금리 인상 등 매크로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어 섹터.

Key Chart: 한국 해외 방산 수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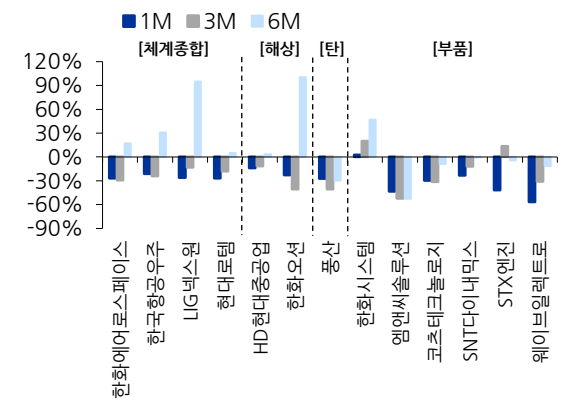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6/01~06/07)

[수주/계약]

- 모로코, LIG '신궁' 미사일 101기·발사대 50대 도입
- 스웨덴 사령관, K2·천무 운용 현장 확인
- 스위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최종 검토'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폭발 화재, 7명 사상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사 첫 전사 조업 중단
- LIG D&A '천궁' 베트남 외국인 무관단 사로잡았다
- 보라매' 6·25 전사자 유해 송환에 첫 실전급 호위
- 한국, '천광'의 핵심 부품 레이저 발전기 국산화 성공
- 한화시스템 능동방호체계, 오는 12월 시험 착수

[기대]

- 국방부 산업부,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글로벌]

- 이란, 美와 협의 중단. 호르무즈 전면 봉쇄
- 이란, 쿠웨이트·바레인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발사
- 루비오 장관, "트럼프 7월 NATO 회담 참석 예정"
- 미국, 유럽과 캐나다에 공군 및 해군력 증강 촉구
- 캐나다, HIMARS 로켓 발사기 26대를 도입
- 안두릴, 엘빗아메리카와 미 육군 자주포 사업 참가
- 엘빗시스템즈, 유럽 국가와 14억 달러 계약 체결
- 폴란드, 영국의 도움을 받아 155mm 포탄 생산 예정
- 라인메탈, 루마니아와 66억달러 포괄 무기 공급 계약
- 라인메탈, 자동차 부품부문 3.5억 유로에 매각
- 라트비아 "러, 2028년 말까지 발트3국 침공 가능성"



Weekly Keyword

이번엔 FLNG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삼성중공업이 미국 델핀 FLNG 1호기를 수주. 이외에도 캐나다, 모잠비크 등 다수 프로젝트 가동 중. FLNG를 넘어 플로팅 데이터 센터까지 신규 사업에 공세를 펼치는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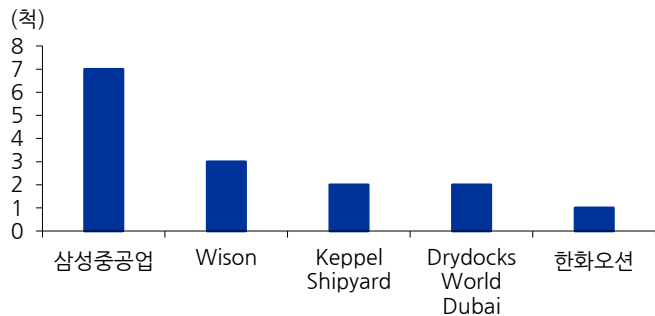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7)

[이번엔 FL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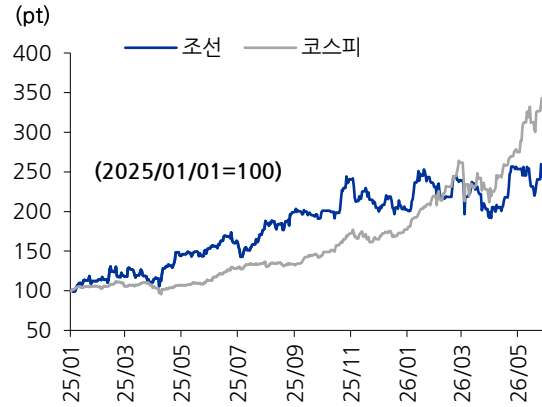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이 미국 델핀 FLNG 1호기를 4.3조원에 계약 체결. 델핀 프로젝트는 FLNG를 총 3기 도입할 계획으로, 후속 물량인 2호기 및 3호기까지 연속 수주를 기대. 삼성중공업은 올해 2호기까지 수주를 목표.
- 이외에도 모잠비크 코랄 2 본계약, 캐나다 Ksi Lisims 등 다수 프로젝트 대기 중. 이탈리아 Eni도 세번째 모잠비크 FLNG 입찰 추진 소식을 알림. 모잠비크 4광구 내 맘바 가스전 개발을 위한 것으로 당초 육상 LNG 액화 플랜트 추진에서 FLNG로 선회. 약 6mtpa 규모의 FLNG로 코랄 프로젝트의 약 2배의 규모감. 삼성중공업은 신조 FLNG 11척 중 7척을 수주하며 압도적 경쟁력 보유. 여기에 플로팅 데이터 센터(FDC)도 추가. 최근 미래사업본부 신설하며, FDC와 미주 사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화에 나서는 모습 인상적.

Key Chart: 글로벌 FLNG 수주 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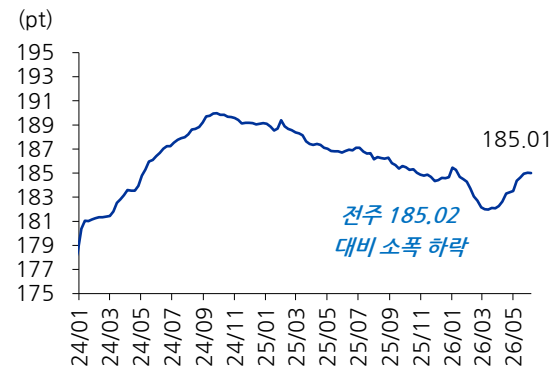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6/01~06/07)

[상선/해양]

- HD현대중공업 \$117.6M VLGC 8척 수주
- 대한조선 \$93.9M 수에즈막스급 2척 수주
- 삼성중공업, 4.3조원 규모 델핀 FLNG 수주
- 삼성중, 캐나다 '시더 FLNG' 성공적 진수
- Eni, 세계 최대 6mtpa급 FLNG 발주 추진
- 삼성중, 플로팅 데이터센터 전담조직 '미래사업본부' 신설

[특수선]

- HD현대중공업, 그리스 최대 조선소와 맞손
- 남미 '27조원' 초대형 규모 함정 발주 러시
- 한화, 美 미사일 방어청 다목적선 2척 건조 신청
- 한·미, 2일부터 핵잠수함 실무협의 시작
- 정부, 캐나다 원유 1,600만 배럴 확보
- 도산안창호함, 캐나다 서부서 연합 대잠·대함훈련
- 캐나다에 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비버' 제안
- 안규백, 캐나다 국방장관과 통화. 잠수함 수주 지원
- 한화오션, '加 총리 자금출·자문역'까지 포섭
- 모로코 잠수함 경쟁서 스페인 탈락. 韓獨佛 '3파전'
- 법원, HD현대중 KDDX '보안감점 가치분 신청'도 기각

[기타]

- 삼성중, 캐피탈, 로이드선급과 FDC 3자 협약 체결
- HD현대, 핵추진 자동차운반선 개발

[글로벌]

- 필리핀, 일본 중고 호위함 5척 도입 추진
- 美 국방부, 2.8조로 한일서 군함 일부 건조 검토



Weekly Keyword

한·중 운수권 확대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7년 만에 한·중 운수권이 확대되며 증편이 어려웠던 중국 노선의 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됨. LCC 중국 노선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경우 실적 개선 여지도 커질 전망.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7)

[한중 운수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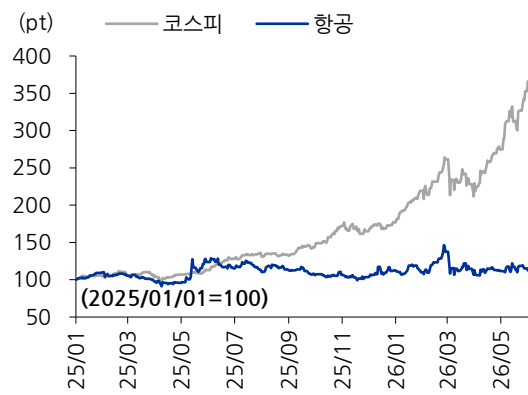
- 국토부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 여객은 주 664회(+56회), 화물은 주 68회(+14회)로 확대. 인천-베이징/상하이/광저우/다렌/청두/하얼빈 노선은 각각 주 7회, 지방 공항-중국 주요 도시 노선도 주 14회 확대.
- 이번 합의는 합병에 따른 노선 재배분 이슈가 있는 양대 국적사보다 LCC에 더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 중국 노선은 운수권 제한으로 공급 확대가 쉽지 않았고, 인기 노선의 경우 기존 양대 국적사 중심의 공급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하반기 신규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LCC의 중국 노선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경우 LCC 노선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매출·수익성 개선 여지도 커질 전망.

Key Chart: 운수권 증대 노선별 상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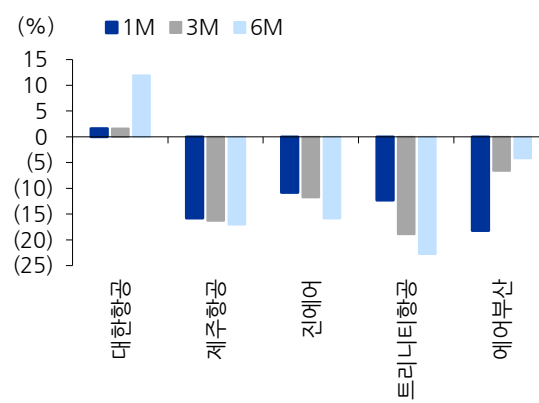
	노선	기존	증대
여객	인천-베이징	주 45 회	주 52 회(+7)
	인천-상하이	주 56 회	주 63 회(+7)
	인천-광저우	주 21 회	주 28 회(+7)
	인천-다렌	주 21 회	주 52 회(+7)
	인천-청두	주 14 회	주 21 회(+7)
	인천-하얼빈	주 14 회	주 21 회(+7)
	한국 지방 - 중국 베이징-상하이 외 도시	주 87 회	주 101 회(+14)
화물	한국 전체 - 중국 화물허브 공항	10 개 공항 주 54 회	12 개 공항 주 68 회(+14)

자료: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6/01~06/07)

[여객/화물]

- 7년만에 한중 하늘길 넓어진다, 상하이-광저우 항공편 확대
- 6월 대한항공 국제선 화물 유류할증료 660~740원/kg 인하
- EU-미국발 항공운임 급등, 유통업계 물류비 삼중고 압박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일부 노선 항공권 공동 판매 시작
- 대한항공, 일등석 기내식 사전주문 해외 노선으로 확대
- 대한항공, '사·반도체' 업고 日 물류 영토 확장
- 티웨이항공, 7월 유럽 항공편 26편 비운항 결정
- 제주항공, 위험물 판별 AI 'JRAG' 도입으로 안전 운항 강화
- 진에어, 인천-미야코지마 노선 누적 탑승객 16만명 돌파
- 에어로케이, 5월 청주발 국제선 이용객 10만명 돌파
- 체급 키우는 이스타항공, 'ATA-중화권·신기재' 성장 엔진

[기타]

- 날개 달린 데이터센터 된 항공기, AI가 바꾸는 운항 패러다임
- 중동전쟁궤 유통 쇼크 현실화, 26개월 만에 물가 다시 3%대
- 장거리 넘보는 LCC 딜레마, 신형기 도입 능사 아니다
- 유가 200달러 공포, 숨막히는 '석화-항공-물류업계'

[글로벌]

- 항공기 발주 급증으로 4월 美 제조업 신규수주 +4.8%yoy
- 이란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 항공편 우회·운항 차질
- 비엠펙항공, 10월부터 하노이-알마타-프라하 신규 노선 취항



Weekly Keyword

호르무즈 개방 이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후 '26년 선종별 시황 강도를 탱커·LPG > 벌크 > 컨테이너 > LNG 순서로 전망. 벌크 실적 방어력에 더해 에너지 수송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팬오션에 주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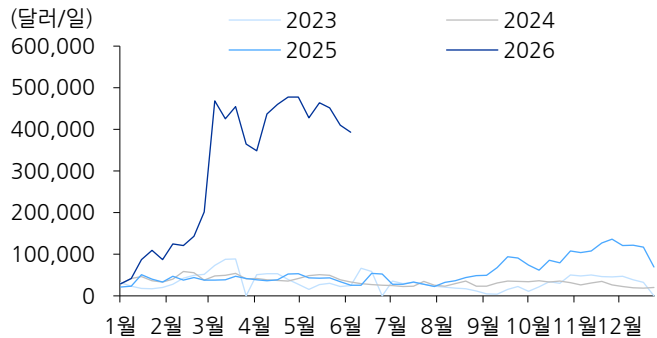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0)

[호르무즈 개방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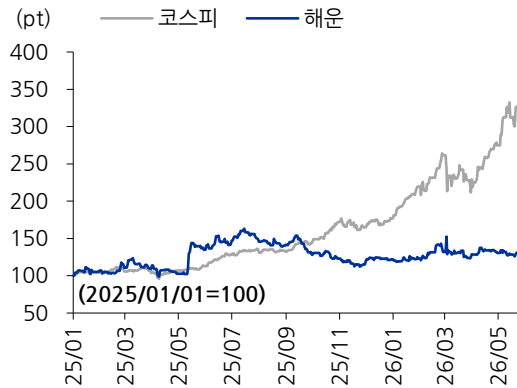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종전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며 해운 시황 변동성 확대. 다만 통항 재개 이후에도 누적 대기 선박 해소와 선박 재배치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톤마일, 선대 부담을 감안해 '26년 선종별 시황의 강도를 탱커·LPG > 벌크 > 컨테이너 > LNG 순서로 판단.
- 탱커·LPG는 중동발 물동량 차질에도 미주·대서양발 아시아향 장거리 물동량 확대와 파나마 운하 혼잡으로 강세 지속 전망. 벌크는 건조한 철광석 수요와 기니 시만두 램프업이 긍정적이나 보크사이트 수출 제한은 리스크. 컨테이너·LNG는 선대 증가 부담으로 운임 반등 지속성은 제한적. 벌크 실적 방어력에 더해 Wet Bulk의 강한 시황을 향유할 팬오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Key Chart: VLCC 운임(MEG-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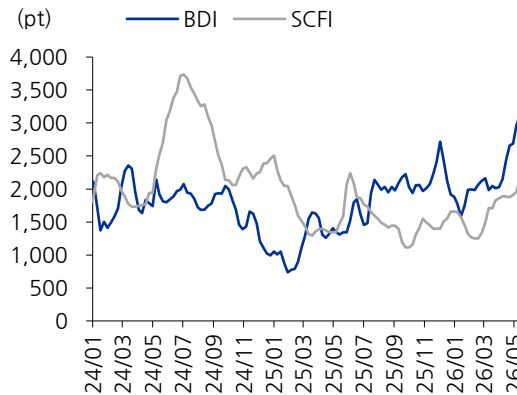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6/01~06/07)

[벌크선]

- STX그린로지스, 96억원 규모 장기대선계약 체결
- 시너지 마리티타임, 케이프사이즈 5척 등 6척 신조 발주
- Veson, '전쟁, 엘니뇨, 탄광사고'로 '26년 석탄수요 급증 전망

[탱커/가스선]

- HMM 컨테이너 넘어 에너지 물류 확장, VLCC 6척 발주
- KSS해운 장기대선계약 334억원 증액, 1,754억원으로 확대
- 흥해해운, 26K DWT 탱커 3척 신조에 2,052억원 투자 결정
- BW LPG, HD현대중공업에 VLGC 8척 신조 발주
- 여덟 번째 'K-원유' 흥해 무사 통과, 국내로 운송 중
- UAE 국영석유사 나프타 수출 재개, 오만항구서 환적
- 이란 5월 원유수출 전월 대비 84% 급감, 美 역봉쇄 효과

[컨테이너선]

- 장금상선 동남아 전략 재편, '싱가포르 지키고 말레이 키우고'
- 부산궤 컨 운임 상승 지속, 미주유럽 항로가 끌어올렸다

[기타]

- 한중 해운회담서 서산 대신항 기항 국제 여객항로 개설 확정
- 한중 카페리·컨테이너 항로 확대 논의, 해운협력 강화
- 국내 1세대 크루즈 팬스타 드림호, 일본~대만 항로 투입
- 현대글로벌비스, 암스테르담에 유럽 첫 완성차 터미널 구축
- 그리스 해운 재벌, 호르무즈 폐쇄보다는 통행로 낸다
- 프랑스 해군, 대서양에서 러시아 연계 유조선 나포